
부록

1. 한국은행 조직도
2.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의결 및 논의사항
3. 경제일지
4. 부문별 담당 부서 및 집필자

1. 한국은행 조직도 (2020년 12월 31일 현재)



주: 1) 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대전충남, 강원, 인천, 제주, 경기, 경남, 강남본부 2) 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강원, 제주, 경기본부 3) 목포, 전

스크팀, 대외협력팀, 조직관리팀, 예산회계팀
역경제팀
규팀
신기술반), 데이터서비스팀
팀(정보자료반), 커뮤니케이션운영팀(사료반), 뉴미디어팀, 화폐박물관팀
제교육운영팀
호팀, 품질관리팀, 전산운영부(경영시스템팀(IT지원반), 정책시스템팀), 전산관리부(주전산팀, 서버팀, 통신팀), 회계결제시스템부(총괄반), 결제시스템팀)
원반), 인사운영팀, 급여후생팀, 노사협력팀(열린상담반), 경리팀
영팀, 조달관리팀
영팀
영팀, 연수지원팀, 교수팀
석팀, 거시재정팀, 국제무역팀, 고용분석팀, 물가분석부(물가동향팀, 물가연구팀), 거시모형부(전망모형팀, 모형연구팀), 국제경제교육유럽경제팀, 아태경제팀, 중국경제팀)
구반), 통계조사팀, 통계정보팀(ECOS재구축반), 금융통계부(금융통계팀, 자금순환팀, 국제수지팀, 국외투자통계팀, 기업통계팀), 특총괄팀(분배국민소득반), 지출국민소득팀, 투입산출팀, 국민B/S팀, 물가통계팀)
리스크팀, 안정분석팀, 금융규제팀, 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 비은행분석팀), 금융안정연구부(금융안정연구팀, 금융제도연
전문은행반), 일반은행1팀, 일반은행2팀, 특수은행팀
획팀, 정책분석팀, 정책협력팀, 정책연구부(통화신용연구팀, 정책제도연구팀)
영팀, 자금시장팀, 금융시장연구팀, 자본시장부(채권시장팀, 주식시장팀)
제협력반), 결제연구팀, 결제운영팀(지급결제개선반), 결제업무팀, 결제감시부(결제안정팀, 결제리스크팀), 전자금융부(전자금융사팀, 디지털화폐연구팀(기술반))
획팀(화폐수급시설개선반), 화폐수급팀, 화폐관리1팀, 화폐관리2팀, 화폐연구팀
계팀, 외환시장팀, 국제금융부(자본이동분석팀, 국제금융연구팀), 외환업무부(외환심사팀, 외환건전성조사팀, 외환정보팀)
코푸르트, 동경, 런던, 북경(홍콩, 상해)
구반), 국제기구팀, 지역기구팀, 금융협력팀, 교류협력부(대외교류팀, 지식협력팀)
획팀, 리스크관리팀, 위탁1팀, 위탁2팀), 투자운용부(운용전략팀, 정부채1팀, 정부채2팀, 회사채팀, 자산유동화채팀), 운용지원부(시스템팀)
화연구실, 국제경제연구실, 거시경제연구실, 미시제도연구실, 북한경제연구실
대전충남, 충북, 강원, 인천, 제주, 충청, 경남
총무팀 ¹⁾ , 기획조사부(기획금융팀, 경제조사팀 ²⁾ , 기획조사팀 ³⁾ , 업무팀, 화폐관리팀 ⁴⁾
력반), 경영관리감사팀, 정책현업감사팀, 외환국제감사팀, 조사통계감사팀, 전산정보감사팀

2.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의결 및 논의사항

차례

(1) 통화신용정책 방향

◇ 통화정책방향 (2020년 1월 17일)	123
◇ 통화정책방향 (2020년 2월 27일)	123
◇ 통화정책방향 (2020년 3월 16일)	124
◇ 통화정책방향 (2020년 4월 9일)	125
◇ 통화정책방향 (2020년 5월 28일)	125
◇ 통화정책방향 (2020년 7월 16일)	126
◇ 통화정책방향 (2020년 8월 27일)	127
◇ 통화정책방향 (2020년 10월 14일)	128
◇ 통화정책방향 (2020년 11월 26일)	129
◇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2020년 12월 24일)	130

(2) 통화신용정책업무 주요 내용

◇ 2020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결정(2020년 1월 17일)	138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결정(2020년 2월 27일)	138
◇ 「한국은행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2020년 3월 12일)	139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 개정(2020년 3월 16일)	139
◇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2020년 3월 16일)	139
◇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2020년 3월 26일)	139
◇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기관 추가 선정(2020년 3월 26일)	140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2020년 3월 26일)	140
◇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2020년 4월 9일)	141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2020년 4월 9일)	141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2020년 4월 9일)	141
◇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및 운용방안(2020년 4월 16일)	142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결정(2020년 5월 14일)	143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2020년 6월 24일)	143

◇ 회사채·CP 매입기구에 대한 대출한도 및 조건 결정(2020년 7월 17일)	144
◇ 회사채·CP 매입기구에 대한 제1회 대출 실시(2020년 7월 17일)	145
◇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 개정(2020년 7월 17일)	146
◇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 연장(2020년 7월 30일)	146
◇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 개정(2020년 9월 10일)	146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2020년 9월 10일)	146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예금규정」 개정(2020년 9월 10일)	147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결정(2020년 9월 24일)	147
◇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 연장(2020년 10월 29일)	147
◇ 회사채·CP 매입기구에 대한 대출조건 변경(2020년 12월 24일)	147
◇ 회사채·CP 매입기구에 대한 제2회 대출 실시(2020년 12월 24일)	148
◇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2020년 12월 24일)	149

(3) 금융안정회의

◇ 「금융안정보고서(2020년 6월)」 (2020년 6월 24일)	150
◇ 「금융안정 상황점검」 (2020년 9월 24일)	151
◇ 「금융안정보고서(2020년 12월)」 (2020년 12월 24일)	152

(1) 통화신용정책 방향

◇ 통화정책방향

(2020년 1월 17일, 제1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교역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었다. 국제금융시장은 미·중 무역협상 진전 등으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낸 가운데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변동성이 일시 확대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건설투자와 수출이 감소를 지속하였으나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하고 소비 증가세도 확대되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일부 개선되는 움직임을 지속하였다. 금년 중 GDP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한 2%대 초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지겠지만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소비 증가세는 완만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의 하락 폭 축소, 석유류 가격 상승 등으로 0%대 후반으로 높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0%대 중반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대 후반을 유지하였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1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하여 금년 중 1% 내외로 높아지고, 근원인플

레이션율은 0%대 후반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였으며, 장기시장금리는 하락 후 반등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나타내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무역분쟁, 주요국 경기,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전개와 국내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깊게 살펴보면서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다.

◇ 통화정책방향

(2020년 2월 27일, 제4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교역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주요국 국제금리와 주가가 하락하고 미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는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 정도, 보호무

역주의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설비투자의 부진이 완화되었으나, 건설투자의 조정이 이어진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수출이 둔화 되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개선되는 움직임이 지속하였다. 금년 중 GDP성장률은 2%대 초반 수준에서 지난 11월 전망치(2.3%)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전환, 석유류 가격 오름세 확대 등으로 1%대 중반으로 높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0%대 후반으로 상승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대 후반을 유지하였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 초반을 보이다가 다소 낮아져 금년 중 1% 내외를, 근원인플레이션율은 0%대 후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장기시장금리와 주가가 큰 폭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서울 이외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교적 높은 오름세를 나타내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계부채 증가세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 무역분쟁, 주요국의 경기,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전개 상황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

◇ 통화정책방향

(2020년 3월 16일, 제6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2020년 3월 17일부터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에서 0.75%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지난 통화정책방향 결정 이후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었다. 또한 그 영향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주가, 환율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증대되고 국제유가가 큰 폭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확대하여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성장과 물가에 대한 파급영향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앞으로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여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 것이다.

◇ 통화정책방향 (2020년 4월 9일, 제8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7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영향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경기침체 우려,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주요국 주가가 큰 폭 하락하고 국제금리와 환율이 급등락하는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 정도, 각국의 정책대응 및 파급효과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가 큰 폭 감소한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되고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졌으며 수출도 소폭 감소하였다. 고용 상황은 2월까지의 취업자수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일시휴직자는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증가하였다. 금년 중 GDP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2.1%)를 큰 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공업제품 가격의 상승폭 축소 등으로 1% 수준으로 낮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0%대 중반에서 소폭 하락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대 후반을 유지하였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 확대, 수요측 압력 약화 등으로 낮아져 지난 2월 전망치(각각 1.0% 및 0.7%)를 상당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및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영향받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큰 폭 상승하였다가 한·미 통화스왑 체결 이후 반락하였으며 장기시장은 1%대 초반에서 등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은 3월 중순 이후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파급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와 국내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다.

◇ 통화정책방향 (2020년 5월 28일, 제12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0.5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제약되면서 크게 위축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적극적인 통화·재정정책, 경제활동 재개 기대 등으로 주요국 주가가 상승하고 국제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이 축소되는 등 불안심리가 상당폭 완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각국 정책대

응의 파급효과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소비가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수출도 큰 폭 감소한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되고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졌다. 고용 상황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는 등 악화되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중 GDP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2.1%)를 큰 폭 하회하는 0% 내외 수준으로 예상되며, 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폭 축소 등으로 0%대 초반으로 크게 낮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0%대 초반으로 하락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대 중반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 수요측면에서의 상승압력 약화 등으로 금년 중 0%대 초반을, 근원인플레이션율은 0%대 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안정,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 등으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축소되었다.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한 가운데 주가는 상승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주택가격도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

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 상황과 국내외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다.

◇ 통화정책방향 (2020년 7월 16일, 제15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이 점차 재개되면서 경기위축이 다소 완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위험회피심리가 완화되면서 주요국 주가가 상승하고 미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내었으며, 국제금리는 소폭 등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각국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민간소비가 경제활동 제약 완화, 정부 지원책 등에 힘입어 반등하였으나 수출 감소세와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진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되면서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였다.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계속 부진하였다. 앞으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나타내겠지만 소비와 수출의 회복이 당초 전망보다 다소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중 GDP성장률은 지난 5월 전

망치(-0.2%)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 등으로 0% 내외의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0%대 초반을 지속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였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 지속, 수요측면에서의 낮은 물가상승압력 등으로 0%대 초반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축소 등에 힘입어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주가가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하락하였으며 장기시장금리는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전월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 상황과 국내외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그간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다.

◇ 통화정책방향

(2020년 8월 27일, 제19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경기위축이 완화되는 모습이 이어졌으나 그 속도는 코로나19의 확산세 지속 등으로 다소 둔화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경기회복 기대가 유지되면서 주요국 주가가 상승한 가운데 미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내고 국제금리는 소폭 상승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각국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수출 감소폭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민간소비의 개선 흐름이 약화된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되고 건설투자는 조정을 지속하였다.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계속 부진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회복 흐름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 등으로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보인다. 금년 중 GDP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0.2%)를 상당폭 하회하는 -1%대 초반 수준으로 예상되며 전망경로의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가격 오름세 확대, 석유류가격 하락폭 축소 등으로 0%대 초반으로 높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0%대 중반으로,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대 후반으로 상승하였다. 금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 지속, 수요측면에서의

낮은 물가상승압력 등으로 0%대 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축소 등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가운데 장기시장금리는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였으며, 주가는 큰 폭 상승하였다가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으로 반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를 이어갔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그간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다.

◇ 통화정책방향

(2020년 10월 14일, 제22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부진이 완화되는 흐름이 이어졌으나 그 속도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 등으로 다소 둔화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주요국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 변

화에 따라 주가, 금리 등 주요 가격변수가 상당폭 등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각국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더딘 회복 흐름을 나타내었다. 수출 부진이 완화되었으나, 민간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미약한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되고 건설투자는 조정을 지속하였다.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계속 부진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금년 중 GDP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1.3%)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농축수산물가격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1% 수준으로 높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0%대 중반에서 소폭 상승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에 근접한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 지속, 수요측면에서의 낮은 물가상승압력 등으로 낮아져 당분간 0%대 초중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등에 영향받아 장기시장금리와 주가가 상당폭 등락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큰 폭 하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를 이어갔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그간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다.

◇ 통화정책방향 (2020년 11월 26일, 제25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회복 흐름을 이어갔으나 그 속도는 코로나19 재확산 지속의 영향 등으로 더딘 모습을 나타내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백신 개발 기대,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완화되면서 주요국 주가와 국제금리가 상승하였으며, 미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백신 개발 상황, 각국 정책대응 및 파급효과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민간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 등으로 더딘 회복 흐름을 보이고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졌으나, 설비투자가 회복 움직임을 나타내었으며 수출은 개선 흐름을 지속하였다.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계속 부진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

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GDP성장률은 금년 중 -1%대 초반, 내년에는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공공서비스가격의 큰 폭 하락 등으로 0%대 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대 후반에서 소폭 하락하였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당분간 0%대 초중반 수준에 머물다 점차 높아져 내년 중 1%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경제지표 개선 등에 영향받아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장기시장금리는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상황과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그간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다.

◇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2020년 12월 24일, 제27차)

I.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

1. 대외 여건

◆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전개 상황 등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나, 연간으로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임

□ 세계경제는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진전, 주요국의 경기부양책 지속, 투자심리 및 교역 개선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나 코로나19 전개에 따른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

○ 선진국은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회복세가 일시 약화되고 있으나 확장적 통화·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회복 흐름을 지속할 전망

* 주요국의 통화·재정정책은 코로나19 전개 상황의 불확실성, 낮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완화 기조를 이어갈 전망

○ 신흥국의 경우 중국이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타 신흥국은 코로나19의 영향 지속 등으로 개선세가 다소 더딜 가능성

○ 향후 세계경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높은 상황

— 백신 보급전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이동제한 조치, 백신의 안전성 검증 및 대량생산·접종 시기 등의 불확실성 요인이 잠재

□ 한편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전년보다 오름세가 확대되겠지만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상승폭은 제한적일 전망

2. 경제성장

◆ 국내경제는 완만하게 회복되며 3%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

□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이나,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에 따른 불안요인이 잠재

○ 수출이 글로벌 경기 및 교역 회복에 힘입어 개선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건설투자 부진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

○ 민간소비는 코로나19의 영향, 가계 소득여건 개선 지연 등으로 회복세가 더딜 전망

○ 향후 국내경제 성장세는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성장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상용화, 국내외 경기부양책 확대, 글로벌 무역환경 개선 등은 상방요인으로,

국내외 코로나19 확산 심화,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미·중 갈등 심화 등은 하방요인으로 잠재

□ 고용상황은 국내경기 회복과 함께 부진이 완화 되겠지만, 회복속도가 완만하고 부문별 회복 양상이 차별화될 가능성

3. 물 가

◆ 물가는 전년보다 높아진 1% 내외의 오름세를 나타낼 전망

□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1% 내외 수준의 오름세를 나타낼 전망

○ 국내경기 개선, 전년 중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전·월세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전년보다 높아지겠지만,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목표수준(2%)을 하회할 전망

□ 향후 물가전망 경로에는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이에 따른 국내외 경기회복세 및 국제원자재가격 오름세 확대 등이 상방요인으로,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환율 하락 가능성 등이 하방요인으로 잠재

4. 금융·외환시장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위험요인의 전개 양상에 따라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대내외 위험요인의 전개 양상에 따라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소지

○ 경기회복 기대, 확장적 통화·재정정책 지속 전망 등이 시장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코로나19 확산 및 경기회복 지연, 취약기업 신용위험 확대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 상존

□ 한편 외화유동성 사정은 경상수지 흑자 기조 지속 등으로 대체로 양호할 전망

5. 금융안정

◆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대체로 원활하겠으나 자산가격 상승 및 부동산·고위험자산으로의 자금 유입 확대, 한계기업 및 취약가구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 위험요인이 잠재

□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은 대체로 원활할 전망이나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부문의 경우 자금사정의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

○ 가계대출은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영향 등으로 증가규모가 전년보다 축소되겠지만 당분간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지속되면서 예년 수준을 상회할 가능성

○ 기업대출은 기업의 예비적 자금 수요 둔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증가규모가 상당폭 줄어들 전망

□ 금융시스템은 가계 및 기업 부채 누증, 부동산가격 상승 등으로 취약성이 증가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자본비율이 규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 다만 레버리지 확대 및 이에 기반한 자산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 누적 가능성,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한계기업 및 취약가구의 채무상환 능력 저하 등이 위험요인으로 잠재

II.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 ◆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완화기조의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위험에 한층 유의
- ◆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성장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신용시장 지원 조치의 연장 여부는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결정
- ◆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 요구에 대응하여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 ◆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가운데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가 현재화되지 않도록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
- ◆ 디지털 혁신 등에 대응하여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

1. 기준금리 운용

□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완화기조 유지

○ 국내경제가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외 코로나19의 확산 정도, 백신 상용화 시기 등 향후 성장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고려

— 물가상승률은 전년보다 높아지겠지만 낮은 수요압력 지속 등으로 물가목표(2%)를 하회할 전망

○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완화적인 수준에서 운용할 것인지는 국내외 코로나19 전개 상황, 주요국의 통화·재정정책 운용, 글로벌 교역여건 변화 등이 국내 거시경제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신중히 판단

□ **(금융안정에 유의)** 통화정책 운영시 완화적 금융여건 하에서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 민간신용 증가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누적될 가능성에 한층 유의하면서 정부의 주택 및 거시건전성 정책이 주택 등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가계 및 기업 대출 증가세 등을 고려

○ 이와 함께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변화에 따라 가격변수, 자본유출입 등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의 전개 상황이 위험선호성향 및 글로벌 투자자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

2.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

□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지원 효과 제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성장 부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코로나19 이후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신성장 부문과 고용 확대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강구

○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한도 증액의 효과와 취약부문의 자금사정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향후 운용 방향을 모색

○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용성과 분석 등을 통해 지원 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 상황 변화 등에 대응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

□ (대출담보제도의 효율적 운용)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범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담보위험관리체계를 개선

○ 한시 운영중인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연장 여부, 적격담보증권의 유동성 및 가격 변동성 등을 고려한 담보가치인정비율 조정 등을 검토

3.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 (통화정책 운영체계 점검 및 개선) 통화정책 운영여건 변화,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요구 등에 대응하여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방식을 현행대로 유지* 하되, 물가안정목표제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주요국 논의 등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계속 연구

*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설정(2018년 12월)시 목표수준을 2.0%로 유지하고 적용기간은 특정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2년 주기로 점검하기로 한 바 있음

○ 한국은행의 고용안정 역할 강화 요구에 대해 주요국 중앙은행 사례 및 외부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방안을 마련

○ 경기부진 심화시에 대비하여 금리 이외 정책수단의 효과적 활용 방안을 검토

□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 경제주체들이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등에서 통화정책 결정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을 강화

○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연 2회) 등을 통해 물가 상황 및 전망, 리스크 요인 등을 충실히 설명

○ 최근의 정책수행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을 수정*

*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에 금융불균형 유의

필요성과 함께 금융시장 안정 노력 명시 등
(<붙임>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참조)

—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금융기관 자금
수급사정, 회사채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
며 재연장 여부를 검토(2021년 2월)

□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한 연구·분석 강화) 포스
트 코로나 시대 경제·산업구조, 환경·기후 변화
등과 관련한 연구·분석을 강화

○ 외환부문 안정을 위해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
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과 긴밀한 커뮤니
케이션을 유지하는 한편 과도한 싺림현상
발생시 적절한 안정화 조치를 시행

○ 코로나 이후 비대면·디지털화 심화 등에 따라
경제·산업구조에 변화가 예상되므로, 관련 분
석을 강화하고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 방안을
연구

○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시장
불안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계획
(contingency plan)을 면밀히 점검·보완

○ 인구구조 변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환경·기후 변
화에 대한 대응이 우리 경제와 통화정책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강화

□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확충 노력 지
속) 스위스 등 만기가 도래하는 주요국 중앙은
행과의 통화스왑계약 연장, 다자간 통화스왑인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
tion)의 싺효성 제고* 등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
의 토대를 강화

4.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시장안
정화 조치를 적기 시행

* ASEAN+3 공동 의장국(2021년) 중앙은행
으로서 미 달러화 외 역내 통화 활용 등을
추진

○ 국고채 수급 불균형 등으로 장기시장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국고채를 단순 매입하
고 필요시 매입 시기·규모 등을 사전에 공표하
는 방안을 검토

□ (유동성 조절수단 개선) 유동성 조절수단 개선을
통해 공개시장운영의 윺효성을 제고

○ 현재 운용중인 신용시장 지원 조치는 지원효
과와 자금증개 기능 회복 정도 등을 면밀히 점
검하면서 계속 운용 여부를 결정

○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애로 및 단기금융시장
불안 발생시 윺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RP
매입 등 유동성 공급수단의 활용도 제고방안*
을 마련

—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매입기한을
6개월 연장(2021년 1월 13일 → 7월 13일)

* RP매입 만기, 대상증권, 대상기관 확대 등

○ 채권시장 및 유동성조절 여건 변화 등에 대응

하여 통화안정증권 발행 개선방안*, RP매각 및 통화안정계정 등 단기유동성 조절수단의 활용 비중 확대 방안 등을 강구

* 발행규모 조절, 필요시 3년물 통화안정증권 발행 검토 등

□ **(지표금리 개선 노력 강화)** 새로운 무위험지표금리의 공시 및 기존 지표금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

- 정부 및 시장참가자와 함께 새로운 무위험지표금리의 공시 관련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기존 지표금리에 대한 공적 규율을 강화 (콜금리 산출체계 개선)

5.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

□ **(금융불균형 위험 완화 노력 강화)**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지속,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확대 등 금융불균형 심화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흐름, 가계·기업 신용의 부실 위험 및 금융기관 건전성에 대한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점검·분석
-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잠재리스크가 현재화되지 않도록 조기경보 활동을 한층 강화

— 금융안정 상황 분석의 정도를 제고하기 위해 리스크 측정 및 평가 기법 등을 고도화

—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부문검사

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되고 있는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조기 파악

* 가계부채 누증, 영세 자영업자 및 취약 중소기업 대출 증가, 한계기업 문제 등

- 핀테크 확산 등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를 강화

□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속)** 국내외 금융안정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금융안정 관련 현안 및 리스크에 적극 대응

-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정책당국과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BIS 및 IMF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

6.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촉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등 지급결제 부문의 혁신에 대한 연구와 대응을 강화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관련하여 가상환경에서의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계획대로 수행하는 한편, 필요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 방안을 검토

- 주요국 중앙은행의 실시간총액결제방식(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운영 사례와 도입 시장 단점을 분석하여 국내 구축 필요성을 검토

□ **(지급결제 안전성 확보)** 빠르게 변화하는 지급결제 환경 하에서 지급결제인프라의 안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

○ 디지털 혁신, 빅테크의 금융결제망 참가, 지급결제 관련 새로운 법적 제도 도입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가 결제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강구

○ 내·외부 전산망 분리 운영에 관한 규제 완화, 사이버 위협 지속 등에 대응하여 인프라 운영 기관 및 참가기관의 IT리스크 관리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개선

□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역할에 대한 제도적 기반 강화)**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따른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요구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

<참고>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한국은행법은 통화신용정책의 목적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며,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목표와 기본방향 하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및 유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물가안정목표제)**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핵심 목적인 물가안정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며, 현재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이다.

○ **(중기적 운영 시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통화신용정책 외에도 다양한 대내외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물가안정목표는 일시적·불규칙적 요인에 따른 물가변동, 통화신용정책의 파급시차 등을 고려하여 중기적 시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 **(미래지향적 운영)** 물가상승률이 중기적 시계에서 목표수준에 수렴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하되,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거나 하회할 위험을 균형있게 고려한다.

— 물가안정목표 수준으로의 수렴 가능성은 물가 및 성장 전망과 더불어 전망경로 상의 불확실성 및 위험요인, 인플레이

이션 기대의 안착 정도, 금융안정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 **(신축적 운영)** 중기적 시계에서의 물가안정 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한다.

□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금융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통화신용정책 운영시 금융안정 상황을 신중히 고려한다.

○ **(금융시장 안정 노력)** 금융불안 발생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제약되고, 거시경제의 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 안정 및 중개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 **(금융불균형 유의)** 부채 누증 등 지속적인 금융불균형은 궁극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이에 유의한다.

—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공표하여 통화신용정책 운영이 금융불균형의 과도한 누적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신용정책만으로 금융안정을 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불균형 누적 억제를 위해서는 통화신용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조화롭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2) 통화신용정책업무 주요 내용

◇ 2020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결정 (2020년 1월 17일, 제1차)

1. 대출금 한도, 상환기한 및 이율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대출금 한도 및 상환기한

대출 구분	회계 별	대출금한도(억 원)	상환기한	기타
일시 대출금	통합계정	300,000	2021년 1월 20일	대출취급기한: 2020년 12월 31일(단, 양국관리특별회계의 경우 2019년 대출금중 미상환액을 한도에 포함하여 관리)
	양국관리특별회계	20,000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단, 2021년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0	2020년 12월 31일	
합계		400,000		

나. 이율은 분기별로 “직전분기 말월중 91일물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를 더한 율로 한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통화안정증권(91일물) 수익률의 단순평균으로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다. 대출형식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대출금 한도와 대출취급기한 내에서 정부의 일시차입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한도 및 조건 등을 확인한 후 신용대출로 취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2. 부대조건

가. 정부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나.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이 구조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양국관리특별회계의 기존 차입금이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다. 정부는 차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차입시기, 규모, 기간 등에 관해 사전에 한국은행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3. 위임사항 : 건별 대출의 실행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임한다.

4. 시행일자 : 2020년 1월 17일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결정 (2020년 2월 27일, 제4차)

□ 2020년 3월 9일부터 적용할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는 현재의 25조 원에서 5조 원 증액한 30조 원으로 하고 이에 따른 프로그램별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현재의 10조 원에서 1조 원 증액한 11조 원으로 한다.

○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는 현재의 6.5조 원에서 1조 원 감액한 5.5조 원으로 한다.

○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 및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현재의 규모를 유지한다.

○ 한도 유보분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현재의 0.1조 원에서 5조 원 증액한 5.1조 원으로 하되, 2021년 12월 1일부터는 한도 유보분 0.1조 원, 총 한도 25조 원으로 각각 환원한다.

◇ 「한국은행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 (2020년 3월 12일, 제5차)

□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다음의 증권을 추가

-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한 산업금융채권
-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중소기업금융채권
-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한 수출입금융채권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

□ 시행일자 : 2020년 4월 1일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 개정(2020년 3월 16일, 제6차)

□ 금융중개지원대출금리를 연 0.50~0.75%에서 연 0.25%로 조정하고자 함

□ 시행일자 : 2020년 3월 17일

◇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 (2020년 3월 16일, 제6차)

□ (대상증권 확대) 현행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에 다음의 증권을 추가

○ 「은행법」에 따른 금융채,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제4조 제1항)

○ 다만 환매조건부증권(RP)매매 대상증권으로 한정 (제4조 제2항)

□ (대상증권의 위험관리) 한국은행의 신용위험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 자기발행채권 및 관계회사 발행채권은 매매 대상증권에서 제외 (제4조 제3항)
- 환매조건부로 신용위험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대한 신용위험이 과다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제6조의2)

□ 시행일자 : 2020년 4월 1일

◇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 (2020년 3월 26일, 제7차)

□ (대상증권 확대) 현행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에 다음의 증권을 추가

○ 전력공사, 도로공사, 가스공사, 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제4조 제1항)

- 다만 환매조건부증권(RP)매매 대상증권으로 한정 (제4조 제2항)

□ (대상증권의 위험관리) 한국은행의 신용위험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 자기발행채권 및 관계회사 발행채권은 매매 대상증권에서 제외 (제4조 제3항)
- 추가 선정된 대상증권의 신용위험이 한국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제6조의2)

□ 시행일자 : 2020년 4월 1일

◇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기관 추가 선정 (2020년 3월 26일, 제7차)

□ 현재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기관이 아닌 통화안정증권·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7개 증권회사와 국고채전문딜러 4개 증권회사를 추가로 선정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기관 추가 선정(안)

		현행	추가 선정(안)
은행	국내은행 (13)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한국씨티, 산업, 한국SC, 경남, 광주, 대구, 부산	국내은행 (13)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한국씨티, 산업, 한국SC,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외은지점 (4)	BNP파리바, JP모건, ING, 미즈호	외은지점 (4) BNP파리바, JP모건, ING, 미즈호
비은행	(5)	미래에셋대우, 삼성, 신영, NH투자, 한국증권금융	(16) 미래에셋대우, 삼성, 신영, NH투자, 한국증권금융, 신한금융투자, 현대차, KB, 하이투자, 키움, 한국투자, 유진투자, 교보, 대신, DB투자, 메리츠증권
계		22	33

주: 밀집친 기관은 통화안정증권·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중 7개 증권회사 및 국고채전문딜러 4개 증권회사

□ 유효기간 : 2020년 4월 1일 ~ 2020년 7월 31일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 (2020년 3월 26일, 제7차)

□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다음의 공공기관 발행채권 및 은행채를 추가

- 중소기업투자보증공단이 발행한 채권
- 한국가스공사가 발행한 사채
- 한국도로공사가 발행한 사채
- 한국수자원공사가 발행한 사채
-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한 사채
- 한국철도공사가 발행한 사채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행한 사채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한 사채

-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에 따른 농업금융채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6조에 따른 수산금융채권
- 「은행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채

□ 다만 대출 적격담보증권에서 금융기관의 자기발행증권은 제외

- 한국은행법상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대출만을 명시함에 따라 신용대출이 불가

□ 대출 적격담보증권 인정기간은 2021년 3월 31일까지(1년)로 설정(부칙)

□ 시행일자 : 2020년 4월 1일

◇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 (2020년 4월 9일, 제8차)

□ (RP매매 대상증권 확대) 현행 RP매매 대상증권에 다음의 증권을 추가

-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 (제4조 제1항 및 제2항)

□ (일부 RP매매 대상증권을 단순매매 대상증권으로 인정)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및 주금공 MBS를 단순매매 대상증권으로 인정

- 동 증권에 대해서는 RP매매 제한 조항을 미적용 (제4조 제2항)

□ (대상증권의 위험관리) 한국은행의 신용위험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 자기발행채권 및 관계회사 발행채권은 매매 대상증권에서 제외 (제4조 제3항)
- 추가 선정된 대상증권의 신용위험이 한국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제6조의2)

□ 시행일자 : 2020년 4월 14일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 (2020년 4월 9일, 제8차)

□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정부 무보증)을 추가 (제4조제1항제8호가목)

- 동 채권의 대출 적격담보증권 인정 기간은 2021년 3월 31일까지로 설정 (부칙)

□ 한시적 대출 적격담보증권은 위험관리 등을 위해 채권의 종류에 따라 특수채 및 은행채로 그룹화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 시행일자 : 2020년 4월 14일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 (2020년 4월 9일, 제8차)

□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20% 포인트 인하하고 예정된 인상 일정을 순차적으로 유예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계획 변경(안)

	현행	20.4월	20.8.1	21.8.1	22.8.1	23.8.1	24.8.1
변경 전	70%	70%	80%	90%	100%	100%	100%
변경 후	⇒	50%	50%	70%	80%	90%	100%

□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에 공공기관 발행 채권(9종) 및 은행채를 추가

- 다만 「한국은행법」상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대

출만을 명시함에 따라 차액결제 불이행시 해당 기관에 대한 신용대출이 불가한 점을 감안하여 적격담보증권에서 금융기관의 자기 발행증권은 제외

○ 신규로 추가되는 적격담보증권은 제2그룹*으로 구분하여 관리

* 신용위험이 내포된 특정 담보증권을 과도하게 납입하여 편중리스크가 증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적격담보증권을 2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담보그룹별 담보활용 비중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음

○ 적격담보증권 인정기간은 2021년 3월 31일까지로 설정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범위 변경(안)

변경 전	변경 후
국채, 통화안정증권, 정부보 증채,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	국채, 통화안정증권, 정부보 증채,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
(추가)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일반 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 *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 시행일자 : 2020년 4월 10일

○ 다만 적격담보증권의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은 전산시스템 변경 및 테스트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하여 금통위 의결 이후 2월의 범위 내에서 총재가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및 운용방안 (2020년 4월 16일, 제9차)

1. 대상기관*

*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4조, 비은행금융기관은 한국은행법 제80조에 근거

○ (은행) 국내은행 16개 및 외은지점 23개(자금조정대출 대상기관)

○ (증권) ① 한국은행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② RP매매 대상기관, ③ 국채전문딜러(PD)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는 증권회사 15개 및 한국증권금융

○ (보험) 한국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 원 이상인 보험회사 6개

2. 총 대출한도 : 10조 원*

* 개별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

3. 제도 운용기간 : 시행일부터 3개월

4. 대출기간 : 6개월 이내

5. 대출담보 : 일반기업(금융회사 및 공기업 제외) 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

*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의 평가 등급 중 최저 등급 기준

** 후순위채,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 자회사 및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가 발행하여 상호연계위험이 있는 회사채는 제외

6. 대출금리 : 통화안정증권(182일) 금리*에 0.85% 포인트를 가산한 금리

* 4개 민간채권평가사(KIS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평균 기준. 대출취급일 직전 5영업일 평균 금리를 적용

7. 대출방식 : 대출 대상기관이 제공하는 적격 담보의 인정가액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이 신청한 금액을 한국은행이 대출

8. 회수방식 : 만기 일시 상환

○ 중도 상환 가능

9. 이자수취 방법 : 만기시 후취

10. 시행일 : 2020년 5월 4일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결정 (2020년 5월 14일, 제11차)

□ 2020년 5월 18일부터 적용할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는 현재의 30조 원에서 5조 원 증액한 35조 원으로 하고 이에 따른 프로그램별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 신성장·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한도,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 및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현재의 규모를 유지한다.

○ 한도 유보분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현재의 5.1조 원에서 5조 원 증액한 10.1조 원으로 하 되, 2021년 12월 1일부터는 한도 유보분 0.1조 원, 총 한도 25조 원으로 각각 환원한다.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 (2020년 6월 24일, 제14차)

□ 차액결제업무 참가 요건으로 다음의 사항을 명시

○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확보

○ 「한국은행법」상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로서 차액결제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 시 한국은행 대출제도(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를 통해 결제유동성 공급이 가능

○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앞 자료제출이 가능하고 금감원과의 공동검사 실시 가능

○ 총재가 정하는 그 밖의 기준을 충족할 것

□ 차액결제 위탁기관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의 사항을 명시

○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확보

○ 관련 법률에 따라 한국은행앞 자료제출이 가능하고 금감원과의 공동검사 실시 가능(단,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차액결제대행계약을 하는 차액결제위탁기관부터 적용)

○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으로서 한은금융망 가입 기준을 충족할 것

○ 총재가 정하는 그 밖의 기준을 충족할 것

○ 대출기간은 대출건별로 적용

□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결과 개선요청 내용이 경미하거나 기술적인 경우 금통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

□ 시행일자 : 2020년 6월 24일

◇ 회사채·CP 매입기구에 대한 대출한도 및 조건 결정(2020년 7월 17일, 제16차)

5. 대출담보 : SPV 전체 자산

○ 한국은행은 SPV가 보유한 회사채·CP, 한국은행 당좌예금 및 한국산업은행 수납관리예금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

○ SPV는 대출실행일에 대출금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여 한국은행에 제공

1. 대출한도 : 총 8조 원 이내

○ SPV 신청에 따라 Capital call 방식으로 대출

6. 대출금 회수 : 만기 일시 상환

○ 중도 상환 가능

2. 대출실행 시한 : SPV 설립(7월 14일) 이후 6개월

7. 이자수취 : 3개월마다 후취

3. 대출금리 :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일정 스프레드를 가산한 금리

○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가산하는 스프레드는 통화안정증권(1년물) 금리*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차이**로 하며, 해당 값이 0보다 작을 경우에는 0으로 함

* 4개 민간채권평가사(KIS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평균 기준

** 대출실행일 직전 5영업일간의 산술평균 값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8. 부대조건

○ 한국은행의 SPV에 대한 대출은 특정기업 또는 부실기업 지원이 아니라 회사채·CP 시장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SPV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동일 기업 및 기업군*에 대한 매입 한도를 전체 지원액의 2% 및 3% 이내로 제한한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한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판단

—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인 기업(코로나19 사태 이전 기준)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

4. 대출기간 :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

○ SPV는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다음과 같은 노

력을 기울이고 운영과정에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행과 향후 운영방향을 협의하여야 한다.

— 포트폴리오의 신용등급별 비중이 AA 등급(A1 등급 포함) 30% 이상, A 등급(A2 등급 포함) 55% 내외, BBB 등급 이하*(A3 등급 포함) 15% 이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운용하되 SPV 설립 6개월 후 시점에서는 동 비중을 준수하여야 한다.

* 2020년 4월 22일 이전 BBB등급 이상이었으나, 이후 BB등급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포함

○ SPV는 한국은행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 회사채·CP 상환, 매각 등으로 SPV의 운용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한국은행 대출금을 만기일 이전이라도 조기에 상환하여야 한다.

○ SPV는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 제80조에 따라 동 기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조사·확인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SPV는 한국은행이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SPV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확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SPV는 회사채·CP 발행기업의 원리금 연체, 회생절차 개시 등 업무 및 재산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즉시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 SPV는 한국은행이 개별 회사채·CP 및 포트폴리오 전반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 기타

○ 대출계약서 등의 작성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다.

◇ 회사채·CP 매입기구에 대한 제1회 대출 실시(2020년 7월 17일, 제16차)

1. 대출금액 : 1조 7,800억 원

2. 대출금리 :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일정 스프레드를 가산한 금리

○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가산하는 스프레드는 통화안정증권(1년물) 금리*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차이**로 하며, 해당 값이 0보다 작을 경우에는 0으로 함

* 4개 민간채권평가사(KIS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평균 기준

** 대출실행일 직전 5영업일간의 산술평균 값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3. 대출기간 :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4. 대출담보 : SPV 전체 자산

○ 한국은행은 SPV가 보유한 회사채·CP, 한국은

행 당좌예금 및 한국산업은행 수납관리예금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

능을 분리하여 신설되었다가 2015년 1월 한국산업은행에 재흡수

- SPV는 대출실행일에 대출금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여 한국은행에 제공

□ 시행일자 : 2020년 7월 17일

5. 대출금 회수 : 만기 일시 상환

- 중도 상환 가능

◇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 연장 (2020년 7월 30일, 제17차)

□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기한을 종전 2020년 8월 3일에서 2020년 11월 3일로 3개월 연장

6. 이자수취 : 3개월마다 후취

7. 기타

-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한도 및 조건 결정」(금통위 의결)의 부대조건을 준용한다.
- SPV에 대한 대출취급일 및 대출금리 산정 등 세부사항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다.
- 한국은행 총재는 본 대출의 실행후 그 내용을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대출 한도 및 금리, 적격 대출담보의 범위 등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방식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

◇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 개정 (2020년 9월 10일, 제20차)

◇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 개정 (2020년 7월 17일, 제16차)

□ 당좌예금 거래대상기관 일부 변경

- 당좌예금 거래대상기관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삭제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영리기업을 추가

- 당좌예금거래약정 체결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총재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명시(제3조)
- 결제전용예금 폐지를 반영하여 결제전용예금 관련 내용을 삭제(제1조 등)

□ 시행일자 : 차세대 한은금융망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참가기관의 준비상황 등을 반영하여 금통위 의결 이후 4월의 범위 내에서 총재가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 (2020년 9월 10일, 제20차)

* 2009년 10월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

□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예금계좌 체계를 개편

(제4조 등)

□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 목표에 부합하도록 결제리스크 관리능력을 갖출 것을 규정(제6조)

□ 시행일자 : 차세대 한은금융망이 차질없이 운영 될 수 있도록 참가기관의 준비상황 등을 반영하여 금통위 의결 이후 4월의 범위 내에서 총재가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예금규정」 개정 (2020년 9월 10일, 제20차)

□ 결제전용예금계좌 폐지에 따라 결제전용예금 관련 내용 삭제(제2조)

□ 시행일자 : 금통위 의결 후 4월의 범위내에서 총재가 정하는 날부터 시행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결정 (2020년 9월 24일, 제21차)

□ 2020년 10월 5일부터 적용할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는 현재의 35조 원에서 8조 원 증액한 43조 원으로 하고 이에 따른 프로그램별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현재의 11조 원에서 2조 원 증액한 13조 원으로 한다.
-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 중소기업대출 안정화 프로그램 한도 및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현재의 규모를 유지한다.

- 한도 유보분은 2022년 5월 31일까지 현재의 10.1조 원에서 6조 원 증액한 16.1조 원으로 하 되, 2022년 6월 1일부터는 0.1조 원으로 한다.

◇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 연장 (2020년 10월 29일, 제23차)

□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기한을 종전 2020년 11월 3일에서 2021년 2월 3일로 3개월 연장

- 대상기관, 대출 한도 및 금리, 적격 대출담보의 범위 등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방식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

◇ 회사채·CP 매입기구에 대한 대출조건 변경(2020년 12월 24일, 제27차)

1. 변경 내용

□ 한국은행의 대출실행 시한을 종전 SPV 설립* 6개월 후(2021년 1월 13일)에서 SPV 설립 1년 후(2021년 7월 13일)로 6개월 연장

* 2020년 7월 14일

□ 한국은행 대출 부대조건인 SPV 포트폴리오의 신용등급별 비중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고, 동 비중 준수 시점을 종전 SPV 설립 6개월후(2021년 1월 13일)에서 SPV 설립 1년후(2021년 7월 13일)로 변경

- AA등급(A1등급 포함): 30% 이상 → 25% 이상
- A등급(A2등급 포함): 55% 내외(변경 없음)

○ BBB등급 이하*(A3등급 포함): 15% 이하 → 20% 이하

* 2020년 4월 22일 이전 BBB등급 이상이었던
으나, 이후 BB등급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포함

* 4개 민간채권평가사(KIS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평균 기준

** 대출실행일 직전 5영업일간의 산술평균
값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2. 시행일

□ 2020년 12월 24일

3. 기타

□ 상기 변경 내용을 제외한 한국은행의 대출 한도, 금리, 기간, 담보 및 여타 부대조건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한도 및 조건 결정」(2020년 7월 17일, 금통위 의결)

□ 시행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도 상기 변경 내용을 시행일부터 동일하게 적용

◇ 회사채·CP 매입기구에 대한 제2회 대출 실시(2020년 12월 24일, 제27차)

1. 대출금액 : 1조 7,800억 원

2. 대출금리 :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일정 스프레드를 가산한 금리

○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가산하는 스프레드는 통화안정증권(1년물) 금리*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차이**로 하며, 해당 값이 0보다 작을 경우에는 0으로 함

3. 대출기간 :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4. 대출담보 : SPV 전체 자산

○ 한국은행은 SPV가 보유한 회사채·CP, 한국은행 당좌예금 및 한국산업은행 수납관리예금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

○ SPV는 대출취급일에 대출금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여 한국은행에 제공

5. 대출금 회수 : 만기 일시 상환

○ 중도 상환 가능

6. 이자수취 : 3개월마다 후취

7. 기타

○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한도 및 조건 결정」(2020년 7월 17일, 금통위 의결) 및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조건 변경」(2020년 12월 24일, 금통위 의결)의 부대조건을 준용한다.

○ SPV에 대한 대출취급일 및 대출금리 산정 등 세부사항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다.

- 한국은행 총재는 본 대출의 실행후 그 내용을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
(2020년 12월 24일, 제27차)

- (통화안정증권 발행한도 의결주기) 현재 3개월 인 분기별 통화안정증권 발행한도 의결주기를 6개월로 변경

- 통화안정증권 발행한도 (제12조)

- 시행일자 : 2020년 12월 24일

(3) 금융안정회의

◇ 「금융안정보고서(2020년 6월), (2020년 6월 24일, 제14차)」

3월 이후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pandemic)으로 글로벌 경제가 심각한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도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신용경계감이 확산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나타냈다. 정부 및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 조치 등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금융시장 불안은 대체로 진정되었으나, 코로나19 전개 양상에 따라 금융불안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안정지수(FSI)는 2월부터 빠르게 상승하면서 4월(22.3)에 위기단계(22)를 넘어섰다가 이후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주의단계를 상회(17.2)하는 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융안정 상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신용시장은 가계의 지속적인 대출수요 증가, 업황 부진에 따른 기업의 자금확보 노력 등으로 민간신용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더해 명목GDP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명목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크게 높아졌다. 가계신용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된 가운데 경기부진 등으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채무상환부담이 늘어났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아직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비은행금융기관에서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기업신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황 악화 등으로 자금수요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신용공급으로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다만 기업부문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자산시장에서는 채권 및 주식 시장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다. 장기시장금리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국내외 시장안정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용스프레드는 기업 실적악화, 신용등급 하향조정 등의 우려가 증대되면서 3월 중순 이후 크게 확대되었다. 주가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등으로 주요국과 함께 급락하다가 국내외 정책대응 등에 힘입어 3월 하순 이후 빠르게 반등하였다. 주택매매가격은 정부의 규제강화, 실물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서울지역이 4월 들어 하락 전환한 반면 서울 이외 수도권은 개발호재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은행의 경영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금리 하락에 따른 순이자마진 축소 등으로 수익성이 저하되었다. 비은행금융기관은 자산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산건전성도 대체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으나, 대부분의 업권에서 수익성이 저하되었다. 아직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금융기관 경영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향후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수익성이 추가적으로 악화되고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증가한 대출의 잠재리스크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자자금은 채권자금의 순유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로 주식자금이 대규모 유출되면서 1~5월 중 49억 달러의 순유출을 나타냈다. 향후에도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미·중 갈등 심화 등으로 글로벌 투자심리가 악화되면서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즉 대내외 충격을 감내하는 능력은 코로나19 확산 대응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 유동성 비율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규제기준을 큰 폭 상회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나타냈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경우 신용 및 시장 손실이 커지면서 국내 금융기관의 복원력이 저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의하여야 한다. 대외지급능력 측면은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이 소폭 감소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코로나19의 확산 및 그에 따른 유례없는 금융·실물 충격으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우리나라와 주요국 정부 및 중앙은행의 적극적 정책대응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점차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 국내외 경기전망의 불확실성, 미·중 갈등 고조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어 높은 수준의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계 및 기업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금융기관의 복원력 약화 가능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신흥국 금융불안 전이 등으로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정부 등과 협력하여 금융불안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는 한편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금융안정 상황점검」 (2020년 9월 24일, 제21차)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인 금융안정지수는 4월 중(23.9) 위기 단계에 진입하였다가 5월 이후 주의단계(8~22)에 머물면서 점차 하락

하였다. 다만 최근 국내외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 등으로 향후 동 지수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

금융안정 상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신용시장의 경우 가계신용은 2019년 말 이후 증가세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신용도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기업의 유동성 확보노력 등으로 증가세가 큰 폭 확대되었다.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나 연체율이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실적부진이 지속되면서 다소 악화되었다.

자산시장에서는 회사채 신용스프레드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신용경계감 증대로 크게 확대되었다가 시장안정화 조치 등에 힘입어 최근 우량물을 중심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주가는 3월 중 급락 이후 빠르게 반등하여 전고점을 회복하였다. 주택가격은 상반기 중 상승세가 확대되었으나 정부의 연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등으로 8월 들어서는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수익성은 선제적인 대손충당금 적립, 예대금리차 축소 등으로 다소 저하되었다.

2020년 상반기 중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주식자금을 중심으로 순유출되었으나, 7월 이후에는 채권자금의 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식자금 유출 규모는 축소되었다.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살펴보면, 모든 업권에서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비율이 규제수준을 상회하는

등 금융기관의 복원력은 강건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다만 코로나19 영향 장기화 등으로 가계 및 기업의 부실이 늘어나면서 손실흡수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외환보유액 및 순대외채권 규모, 한·미 통화스왑계약 연장(2020년 7월 30일) 등을 감안하면 외환부문의 복원력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2020년 상반기 중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의 대응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유동성의 자산시장 유입 등으로 금융·실물 괴리 우려가 커지는 등 중장기적으로 금융안정 측면의 잠재리스크는 다소 증대되었다. 이러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 외환부문의 지급능력 등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은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저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 축적 가능성과 함께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민간부문의 채무상환능력 약화 우려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의 복원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조기경보 활동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금융안정보고서(2020년 12월)」 (2020년 12월 24일, 제27차)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정책당국의 시장안정화 조치 등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였다. 10월 이후 국내외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금융·외환시장이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중개기능은 원활히 작동하고 있다.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안정지수는 4월 위기단계에 일시 진입하였다가 하락세를 지속하여 11월에는 7.8(잠정)로 주의단계 임계치(8)를 소폭 하회하고

있다.

금융안정 상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신용시장의 경우 가계와 기업 모두 차입을 늘리면서 민간신용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더욱이 명목GDP 성장률이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면서 명목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가계신용은 주택관련대출, 신용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가운데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채무상환부담이 늘어났다. 아직까지는 가계대출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소득여건 개선이 미약할 경우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증대될 수 있다. 한편 기업신용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수요가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이어갔다. 실적부진이 지속되면서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꾸준히 악화되고 있어 향후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신용 및 유동성 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다.

자산시장에서는 채권 및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축소되었으나 주택시장은 가격상승압력이 높은 모습이다. 장기시장금리는 추경편성에 따른 수급부담, 국내외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주요국과 함께 상승하였고, 신용스프레드는 정책당국의 시장안정화 조치 등으로 신용경계감이 완화되면서 축소되었다. 주가는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 완화,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주택매매가격은 정부의 연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일시 둔화되었다가 11월 들어 수도권, 5대광역시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었다. 한편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이 지속되면서 금융·실물 괴리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은행의 경영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수익성이 대손비

용 증가 등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은 자산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산건전성이 대체로 개선되고 수익성은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다만 현재 건전성 지표가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 등으로 실제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자금은 2020년 중 주식자금이 순유출된 반면 채권자금은 순유입되었다. 주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규모 순유출을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내 경제지표 등으로 10월 이후 순유입으로 전환되었다. 향후 국내외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른 봉쇄 강화 등이 위험회피 심리 강화로 이어질 경우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즉 대내외 충격을 감내하는 능력은 금융기관의 자본비율이 규제기준을 큰 폭 상회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나타냈다. 은행의 경우 바젤Ⅲ 개편안 조기도입으로 상승하였으며, 비은행도 대체로 자본적정성 비율이 상승하였다. 대외지급능력은 외환보유액이 4월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국내외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하고 금융기관이 원활한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금융시스템의 복원력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국내외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 글로벌 경기회복세 약화 우려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다. 아울러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확대,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지속 등 금융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중장기적인 금융안정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점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3. 경제일지

(1) 통화·금융·재정

- 1.17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1.25%) 유지

- 2.20 ▷ 정부,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 발표
 -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주택가격 구간별로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열 지속 시 추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 2.27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1.25%) 유지

- 3.13 ▷ 금융위원회,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 한도 확대 시행
 - 3월 16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 동일 기간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

- 3.16 ▷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 한국은행 기준금리 50bp 하향 조정(1.25% → 0.75%)

- 4.9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0.75%) 유지

- 5.20 ▷ 정부,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방안」 마련
 - 정부·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 사채 매입기구 설립
 - 10조 원 규모로 운영하되 필요 시 20조 원까지 확대하며, 우량 A등급을 주로 매입하되 BBB등급 이하 채권도 매입
 - 동일기업 및 기업군에 대한 매입 한도는 전체 지원액의 2% 및 3% 이내로 하며, 발행 기업들이 시장 조달 노력을 우선 기울이도록 시장금리에 일부 가산 수수료를 추가하여

금리 설정

- 5.28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 한국은행 기준금리 25bp 하향 조정(0.75% → 0.50%)
- 6.17 ▷ 정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 경기·인천·대전·청주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 서울 송파·강남구 등 주요 개발 호재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및 2차 안전진단시 현장조사 의무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만 분양신청 허용
○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및 종부세 공제 폐지
- 6.29 ▷ 금융위원회, 「바젤Ⅲ 최종안」 조기 시행 승인
○ 2020년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15개 은행 및 8개 은행지회사가 바젤Ⅲ 신용리스크 개편안 조기 시행
- 7.16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0.50%) 유지
- 8.27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0.50%) 유지
- 9.1 ▷ 기획재정부, 「2020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발표
○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촉진 등 경제활력 제고 및 성장동력 확충
○ 서민·자영업자 지원, 소득수준별 세부담 적정화 등 포용성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 과세기반 확대, 납세자 권리 보호 등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 10.5 ▷ 정부,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마련
○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종합 고려하는 방식 도입, 재정준칙 한도 초과시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 의무화
○ 심각한 경제위기에 해당할 경우 준칙 적용 면제, 경기둔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합재정수지 기준 1%p 완화 등 보완장치 마련

- '25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5년마다 한도를 재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준칙 운용

10.14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0.50%) 유지

10.16

▷ 금융위원회·법무부,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확정

- 이자 경감 효과와 금융이용 축소 우려를 종합하여 24% → 20%로 인하
- 시행령 개정을 통해 21년 하반기부터 시행,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감소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병행

11.26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0.50%) 유지

12.17

▷ 정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 발표

-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및 경제·방역 간 균형 도모, 내수경기의 신속한 재생과 진작, 투자개선 모멘텀의 본격적 구축·확산
-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력 강화, 지역투자 활성화 및 균형발전 촉진, 소상공인·기업 경영 지원
- 디지털 혁신경제 선도, 벤처·창업 활성화 및 서비스산업 혁신
-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재정·공공·노동 등 부문별 구조혁신
-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코로나시대 격차 해소, 국민안전·삶의 질 개선

(2) 무역·외환

- 3.19 ▷ 한국은행, 미 연준과 통화스왑계약 체결
 - 글로벌 달러자금시장 경색 해소를 목적으로 600억 규모, 계약기간 최소 6개월의 양자간 통화스왑 체결

- 3.26 ▷ 정부, 「외화건전성 제도 조정방안」 확정
 - 은행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 25% 상향조정
 -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 부담금 납입 부담 한시적 경감 및 현행 80%인 외화 LCR을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하는 방안 추진

- 4.8 ▷ 정부, 「수출 활력 제고방안」 발표
 - 무역금융 추가 지원, 코로나19 유망상품 수출 확대 등 수출 애로 해소
 - 핵심품목 확대·상시관리 및 다변화·규제완화 등 공급망 재편 대응
 - 민간부담금 축소, 인건비 지원 확대 등 최대 2.2조 원 규모 지원

- 6.30 ▷ 정부,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제도」 도입
 - 외국환평형기금과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을 활용하여 금융회사가 보유한 외화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미 달러화 자금 공급
 - 유동성 및 안정성이 높은 미국 국채로 대상 증권을 한정하며, 국내 외환스왑시장 수급 상황 및 금융회사의 대상 증권 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공급 규모 결정

- 11.13 ▷ 정부, 「무역 디지털 전환대책」 발표
 - 3대 공공 B2B 플랫폼의 기능 통합, 글로벌화 촉진 등 한국형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구축
 - 글로벌화 유망기업 발굴, 수출초보기업 집중 육성, 글로벌 스타트업 창출 등 디지털 수출기업화 추진
 - 디지털 무역지원시스템 고도화, 비대면·디지털 활용 인프라 확충 등 수출지원체계 개편

(3) 산업·고용 및 기타

- 3.18 ▷ 정부,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긴급 지원방안Ⅱ」 발표
- (항공업) 6월부터 예정된 착륙료 감면 즉시 시행, 항공기 정류료 3개월간 전액 면제, 운항 중단 공항의 상업시설 임대료 전액 면제, 미사용 운수권·슬롯 회수 전면 유예
 - (해운업) 한·일 여객노선 국적선사에 2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 지원, 부산여객터미널 임대료 100% 감면
- 4.1 ▷ 정부,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Ⅲ」 발표
- (관광업) 공항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상향 조정, 대·중견기업의 임대료 20% 신규 감면
 - (영화업)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한시 감면, 코로나19 상황 진정시 홍보캠페인 지원
 - (통신·방송업) 중소 단말기 유통점 및 통신설비 공사업체 등에 대해 4,2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 일감확대를 위해 상반기 5G 통신망 투자 금액을 4조 원으로 확대
- 4.9 ▷ 정부, 「코로나19 관련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Ⅳ」 발표
- (부담금, 점용료 등 비용경감) 교통유발부담금 2020년도 부과분 30% 경감, 민간사업자의 2020년도 도로·하천 점용료 25% 감면
 - (스포츠 산업 지원방안) 운전자금 특별융자 300억 원 추가 지원, 영세 스포츠업체의 역량 강화 지원
 - (농수산 분야 지원방안) 농번기 농업인력 공급 지원, 공공부문 화훼 수요 발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판매지원
- 4.22 ▷ 정부,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발표
- (고용안정 특별대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 구직급여 규모 확대,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 (기업안정화 지원방안) 비우량채 매입 프로그램 등을 통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기업 지원 규모 확대
- 5.14 ▷ 정부, 「감염병 대응산업 육성방안」 발표
- (방역·예방 단계) AI·빅데이터 활용 감염병 예측 모형 개발, 감염병 연구데이터 DB의 구축·활용, 핵심 방역장비의 국산화 추진
 - (진단·검사 분야) 연구기관의 인력·장비 제공, 중소·벤처 진단키트 생산업체 지원

- (백신·치료 단계) 치료제·백신 R&D 및 임상 지원 확대, 백신공정 개발서비스 지원
- (방역체계) 감염병 전문병원 및 연구소 설립 추진, 한국형 감염병 진단기법의 국제표준 제정 추진

5.20

▷ 정부,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영방안」 마련

- 국민경제, 고용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 중심으로 산업은행법 시행령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토대로 선정
- 운영자금 대출, 주식연계증권 인수 등의 방식을 이용하며 기금채권 발행으로 재원 조달
-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 규모 유지, 정상화 이익 공유, 주주·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의 조건
-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민간은행과의 협업체계 구축

5.28

▷ 정부, 「코로나19 관련 주요 피해업종 지원방안」 발표

- (자동차 부품 산업) 5,000억 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대상 특별보증 신설, 2020년도 관·부가세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 공공부문의 업무용 차량 조기구매 및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원규모 확대
- (중형 조선산업) 노후 관공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조기교체, 원양어선 및 해경함정 등의 연내 조기발주 추진
- (섬유·의류 산업) 공공부문 섬유·의류 구매 예산의 조기집행 추진,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만기연장 및 특례보증 지원
- (스포츠 산업) 스포츠 기업 지원을 위한 일반용자 추가 확대, 민간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비대면 스포츠 코칭 지원

6.11

▷ 정부,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 발표

- 투자애로 해소, 철저한 집행관리 등을 통해 민간(25조 원)·민자(15.2조 원)·공공(60.5조 원) 100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집행·발굴 가속화
- 벤처자금 공급 확대, 인프라·R&D 지원 확대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분야 벤처·창업 활성화
- 규제외 합리적 개선, 진입규제 및 비용·행정부담 완화 등 현장밀착형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
-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 채용인프라 확충 및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등의 민간부분 신규 채용 촉진

- 6.19 ▷ 정부,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 발표
- 기간산업 생태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저신용으로 금융접근에 제약이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5조 원의 운영자금대출을 공급
 - 기간산업안정기금, 민간은행, 정책금융기관이 대출 위험을 분담하고 협력업체 또한 후 순위 인수 등의 위험분담 및 고용유지 노력
 - 신규 운영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기존 대출한도 외 추가한도 인정
- 7.14 ▷ 정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 (디지털 뉴딜) 대규모 ICT 인프라 구축, 데이터 수집·가공·결합 고도화 등 데이터경제 촉진을 통해 신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 (그린 뉴딜)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경제 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
 - (안전망 강화) 경제구조 재편에 따른 실업 불안 및 소득 격차 완화
- 11.19 ▷ 정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 (비대면 규제 개선)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검증 시 조기 제도개선 지원, 모바일 전자 고지 확대, 디지털 신원인증 등 생활편의 규제 개선
 - (비대면 혁신기업 육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K-비대면 기술 표준화, 수출지원체계 디지털화
 - 포용적 비대면 생태계 조성) 디지털 분야 갑을문제·소비자 분쟁 해소, 플랫폼 경제 독과점 규율 등 공정경쟁 확립
- 12.7 ▷ 정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 발전·산업·건물·수송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온실가스 조기 감축 유도
 - 기존 혁신 생태계를 탄소중립 패러다임에 맞게 점검·보완하고 저탄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인식·육성하는 체계 구축
 - 재정제도 개선 및 녹색금융 활성화, 기술개발 확충, 국제협력 등을 통해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및 효과적 탄소감축 이행 지원
- 12.23 ▷ 정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 고용보험 적용 확대, 사각지대 해소,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

4. 부문별 담당 부서 및 집필자

연차보고서 세부 부문	집필자	
I. 한국은행 개요		
1. 연혁 및 설립목적	통화정책국	김효손
2. 조직		
가. 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실	정성환
나. 집행간부 및 감사	비서실	한승혁
다. 부서조직 및 소관업무	기획협력국	천재정
II. 경제 동향		
1. 실물경제		
가. 세계경제	조사국	박병걸
나. 국내경제	조사국	임준혁, 이나윤, 이군건, 황수빈, 유민정, 김윤경
	지역협력실	구병수
2. 금융·외환시장		
가. 국제금융시장	국제국	한재찬
나. 국내금융시장	금융시장국	이은지
	국제국	김대석
III. 업무 현황		
1. 중기전략	기획협력국	김현희
2. 통화신용정책		
가. 물가안정목표	조사국	이지원
	통화정책국	배정민
나. 기준금리	통화정책국	배정민
다. 여수신	통화정책국	이은국
	금융결제국	송윤정
라. 공개시장운영	금융시장국	윤태영
마.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통화정책국	배정민
	금융통화위원회실	정성환
	커뮤니케이션국	정유미
3. 금융안정		
가. 거시건전성 분석·평가	금융안정국	조항서, 김민서
나. 외환시장 안정조치	국제국	한재찬
다. 중층적 금융안전망 확충	국제협력국	안성희
4. 발권		
가. 화폐 발행	발권국	이태검
나. 화폐 유통	발권국	육지훈
다. 대외 협력	발권국	육지훈

연차보고서 세부 부문

집필자

5. 지급결제		
가. 한은금융망 운영	금융결제국	정혜림
나. 감시 및 리스크 관리	금융결제국	정혜림
다. 지급결제제도 개선	금융결제국	정혜림
라. 지급결제 관련 국제협력	금융결제국	정혜림
6. 외환 및 국제협력		
가. 외국환	국제국	한재찬, 김대석, 조지은
나. 외화자산 운용 업무	외자운용원	남석원
다. 국제협력	국제협력국	안성희
7. 조사통계		
가. 조사연구	조사국	이용대
	경제연구원	조유정
	지역협력실	이재원
나. 통계	경제통계국	이혜민
8. 국고 및 증권		
가. 국고	국고증권실	조영화
나. 증권	국고증권실	신성욱
다. 기금관리	국고증권실	신성욱
9. 대외 커뮤니케이션		
가. 국민과의 소통 확대	커뮤니케이션국	정유미, 장윤경, 이준호
	기획협력국	김광룡
나. 대국민 경제교육 활동 강화	경제교육실	서하나

IV. 경영 상황

1. 조직 운영		
가. 조직 체계	기획협력국	천재정
나. 조직 운영방식	기획협력국	천재정, 윤세진, 이영호
다. 중장기 발전전략(BOK 2030) 수립	기획협력국	김현희
라. 교육훈련	인재개발원	신영석
마. 인력 운영	인사경영국	조주연
바.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확산	인사경영국	하지원
사. IT시스템 개선·확충	전산정보국	김은정
아. 통합별관 건축 추진	별관건축본부	유철중
2. 재무 현황	기획협력국	배문선

부록

1. 한국은행 조직도	기획협력국	천재정
2.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의결 및 논의사항	금융통화위원회실	정성환
3. 경제일지	조사국	임준혁, 이나윤
4. 부문별 담당 부서 및 집필자	커뮤니케이션국	정유미

보고서 작성총괄

커뮤니케이션국 정홍순, 한상우, 정유미